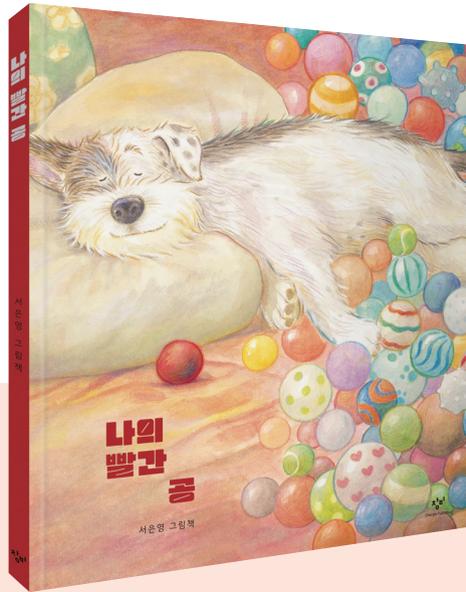


예술경험

“할머니 목소리는 빨간 공만큼이나 좋아요.”
빨간 공처럼 부드럽게 익어 가는 사랑 이야기



나의 빨간 공

서은영 그림책 | 창비 2022

잃어버린 빨간 공을 찾아 떠난 노견 '하나'의 모험 이야기.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가 던진 공을 언제 어디서나 척척 받던 하나는 이제 종종 공을 놓친다. 하나가 오랜 시간 소중히 여겨 온 빨간 공이 파도에 밀려가자 하나는 공을 잡으려고 바다로 뛰어든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빨간 공을 따라가던 하나는 수많은 공으로 이루어진 섬에 다다른다. 친구를 잃어버린 공들이 모여 사는 공섬이다. 하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빨간 공과 보낸 시간을 돌아보며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슬플 때나 외로울 때 할머니와 하나 그리고 빨간 공 셋이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린다. 하나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빨간 공과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늘 빨간 공을 곁에 두는 하나. 할머니와 하나 그리고 빨간 공 사이의 애뜻한 사랑이 우리 주변에서 홀로 지내는 모든 이들을 떠올려 보게 하는 다정한 그림책이다.



알록달록 공 섬

친구를 잃어버린 공들이 모여 사는 공 섬에서는 누구도 외롭지 않지요.
포근한 섬의 풍경을 떠올리며 공들을 알록달록하게 색칠해 보세요.





하나의 꿈

할머니와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지 상상하고,
글이나 그림으로 말풍선을 채워 봅시다.

